

보도 일시	2022. 5. 6.(금) 09:00 배포 시	배포 일시	2022. 5. 6.(금) 09:00
담당 부서	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정주 (044-201-1811)
		담당자	사무관 정성수 (044-201-1815)

2021년산 쌀 12만 6천 톤 시장격리 매입 절차 추진

주요 내용

- 농식품부는 오늘(5월 6일) 2021년산 쌀 12만 6천 톤 시장격리 세부 계획을 공고(공고기간: 5월 6일~5월 15일)하고 입찰 준비과정을 거쳐 5월 16일 입찰을 통해 매입을 실시하기로 함
- 매입 대상은 농가, 농협, 민간 산지유통업체(RPC)가 보유하고 있는 2021년산 벼이며, 도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짐
- 농식품부는 이번 시장격리와 함께, 2022년산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조정 방안도 함께 추진 중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오늘(5월 6일)부터 2021년산 쌀 12만 6천 톤에 대한 시장격리 매입 절차를 추진한다.

이번 조치는 2021년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초과생산량 27만 톤* 중 20만 톤**을 우선 시장격리하고 잔여 물량은 추후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.

* 2021년산 쌀 생산량 388만 톤(11.15일 통계청 발표), 2021년산 쌀 추정 수요량 361만 톤
고려 시 초과 생산량은 27만 톤 수준

** 지역별 공개입찰을 통해 14만 4천 톤 매입 완료(2022.2.8.~4.8.)

농식품부는 지역별 산지유통업체 재고 파악, 정부양곡창고 여석 확인, 현장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시장격리 방안을 확정하고 오늘(5월 6일)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했다.

이번 시장격리 매입대상은 농가, 농협, 민간 산지유통업체(RPC)가 보유하고 있는 2021년산 벼이며, 도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. 입찰은 농협의 '인터넷 조곡공매시스템(<http://rice.nonghyup.com>)' 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.

이번 시장격리에서는 1차 시장격리와 동일하게 농가 보유 물량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며, 시장격리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시·군 내 지역 농협과 협의하고 지역 농협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.

지역별 시장격리곡 매입 물량은 지역별 쌀 재고와 전년 대비 산지쌀값 하락 정도 등을 반영하여 도별로 배분한다.

또한 입찰 한도를 기존 최소 물량을 100톤에서 20톤, 최대 물량을 3,000톤에서 1,000톤으로 변경하였다. 1차 시장격리 시 최소 입찰 단위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, 최대한 많은 농가와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.

농식품부는 입찰 준비과정을 거쳐 5월 16일에 입찰을 실시하고 매입 검사 후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다.

* 세부 사항은 농협 '인터넷 조곡공매시스템(<http://rice.nonghyup.com>)'의 공고문 참조

아울러 농식품부는 2022년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벼 재배면적조정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.